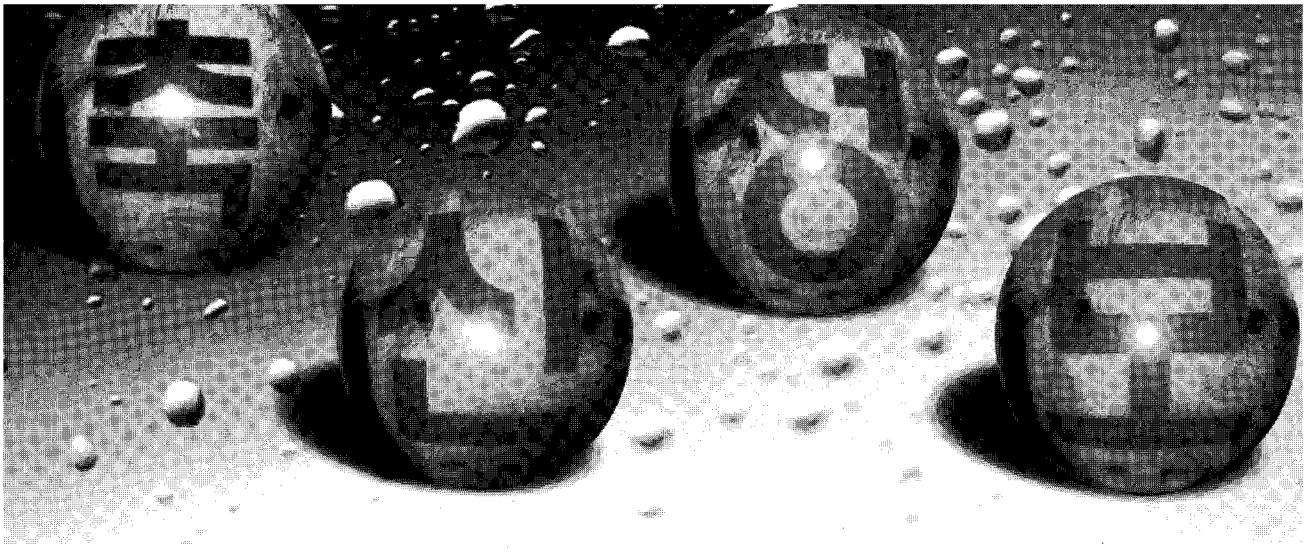

##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평균가격 발표기준 변경

### - 농림부, 본회 요청 적극 받아 들여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평균가격 발표기준이 기존 A-D등급 평균치에서 A-B등급, A-C등급, A-D등급으로 구분 발표된다.

농림부는 지난 9월 15일 서울축산물공판장에서 거래되는 현 돼지 경락가격에 대해 다양한 가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거래투명성 확보를 위해 평균가격 발표기준을 변경 발표하도록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에 통보했다.

이는 최근 본회가 "서울축산물공판장의 평균가격은 비규격돈 및 위축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양돈농가의 경영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비규격돈, 위축돈이 포함되지 않은 평균가격으로 발표기준을 변경·발표해 줄 것을 농림부에 요청함에 따라 농림부가 이를 적극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축산물공판장 평균가격은 A-D등급 평균치가 아닌 A-B등급, A-C등급, A-D등급 으로 각각 구분하여 발표하게 된다.

한편, 본회는 앞으로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세팩스 서비스를 비규격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A-C 등급 평균가격을 회원 및 양돈농가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 농림부, 돈육 수출 관련 필리핀 농림부 장관 방문 요청

### - 본회의 냉동 돈육 2만톤 필리핀 수출 위해 서신발송

농림부는 지난 9월 8일 본회가 2003년과 2004년에 필리핀으로 수출예정이었던 냉동 돼지고기 2만톤 수출과 관련, 한국산 돼지고기의 필리핀 수출이 재기될 수 있도록 필리핀 로렌조 농림부 장관 방문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다.

농림부는 서신에서 수출예정 물량인 2만톤의 돼지고기는 양돈협회에서 생산한 것으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이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며, 이 제품들은 이미 병원균 감염 검사들을 포함해 엄격한 품질검사를 통과해 안전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이에 농림부는 냉동 돼지고기 2만톤 필리핀 수출을 위한 냉동 돼지고기 검수와 유효성을

검사하기 위해 로렌조 장관 또는 농림부 대표부의 방문을 요청했다.

## 태풍피해 특별재해지역 선포될 듯

### - 김행자부 장관, 국무회의서 이같이 보고

최근 태풍 '매미' 피해와 관련, 빠르면 오는 9월 24일경에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태영 청화대 대변인은 지난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두관 행자부 장관이 "18일부터 정부합동조사를 벌인 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중앙재해대책위 논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건의할 것"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행자부 등 8개 부처의 태풍 피해상황 및 복구대책에 대한 합동 보고를 받은 후 특별재해지역 선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가 신속히 골고루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별재해지역이 선포되면 양돈농가의 경우 돼지 100마리당 일반지역보다 45% 상향된 1천3백34만원(입식비 8백34만원, 위로금 5백만원)이 지원된다.

## 태풍 '매미'로 돼지 2만5천여두 폐사

지난 9월 18일 현재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해 전국적으로 2만5천여두의 돼지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농림부에 따르면 이날 9월 18일 현재, 태풍 '매미'로 인한 돼지 폐사 두수는 경남지역 1만8,500두를 비롯, 강원 3천두, 경북 2천900두, 전남 160두, 전북·대구 각 100두, 부산 40두로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 "종돈장 구제역·돼지콜레라 등 정기적인 검사 받아야"

### - 농림부, '종돈장방역관리요령' 개정 고시

앞으로 종돈장에서 키우는 씨돼지는 구제역, 돼지콜레라 등의 가축전염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 종돈장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지난 9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골자로 하는 '종돈장방역관리요령'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요령에 따르면, 축산법령상 신고(등록)된 종돈장의 돼지에 대해 구제역,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주기는 종모돈·종빈돈 등 번식돈군은 반기별 1회 이상,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모돈 등은 분기별 1회 이상 가축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두수는 구제역의 경우 번식돈군·후보모돈 구별없이 20~60두, 돼지콜레라는 번식돈군은 10두 이상, 후보모돈은 후보모돈 선발·분양을 목적으로 사육중인 돼지의 5% 이상 검사해야 한다.

돼지오제스키는 번식돈군 25~30두(단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은 전두수 실시), 후보모돈은 돼지콜레라 후보모돈과 동일하게 검사를 해야 한다.

## 미국곡물협회 박영인 회장 은퇴식

### - 생산자 4개 단체 감사패 전달

지난 9월 19일 롯데호텔에서 박영인 박사의 미국곡물협회 한국대표 퇴임식이 있었다.

이날 전국한우협회(회장 남호경),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김남용), 대한양돈협회(회장 김건태),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 등 4개 단체는 박영인 박사에게 그 동안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쓴 공을 치하하는 감사패를 공동명의로 전달했다. 또한 허상만 농림부장관도 축산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 농림부, 자문변호사에 김태욱 변호사 위촉

농림부는 2003년 6월부터 본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하고있는 김태욱 변호사를 지난 9월1일부로 농림부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태욱 농림부 자문 변호사는 2003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2년간 농업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기타 농림부 소관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의 법률적인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편, 김태욱 농림부 자문변호사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제주도에서 직접 양돈장(아라농장, 2000여두 규모)을 경영하는 등 법과 양돈실무를 겸비한 법조인이다.

## 농림부, 친환경 축산직불제 내년 시범 실시

### - 11월 세부 시행 지침 마련 후 공청회 등 거쳐 최종 확정

친환경 축산직불제가 내년 시범 실시된다.

농림부는 지난 8월 26일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축산업등록제와 병행해 친환경축산직불제 도입(안)을 마련했다.

농림부가 마련한 직불제 도입(안)은 돼지, 한우, 젖소, 닭을 대상 축종으로 정부가 친환경축산직불제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는 농가에게 일정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양돈의 경우 분뇨처리시설 용량을 현시설보다 20% 수준 추가 확장하거나, 등록제 기준보다 사육두수를 20% 감축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한도는 축종에 관계없이 호당 1천만원으로 양돈의 경우 (등록제 기준 사육두수×20%)×두당소득×0.5이며, 적정 사육밀도 유지를 위해 사육두수를 감축한 농가에 대해선 기본 직불금과 별도로 호당 500만원을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한편, 농림부는 오는 11월 친환경 축산직불제 세부시행지침을 마련키로 하고, 공청회와 생산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 지난해 육류 중 돼지고기 소비량 가장 많아

### - 전체 육류 소비량의 50.8% 차지

지난해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7kg으로 육류 중 소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농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라 국민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17kg으로 전체 육류 소비량의 50.8%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해 육류 총 소비량은 159만8,133톤으로 전년보다 3.7% 인 5만6,355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돼지고기 총 소비량은 84만447톤으로 전년보다 0.4%인 3,026톤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5kg, 닭고기는 8kg인 것으로 나타났다.

## PED 발생 전년보다 약 2배 증가

### - 지난 7월 경기 등 4개 시·도 1,675두 발생

지난 7월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두 배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발표한 7월 가축전염병발생월보에 따르면, 7월 중 돼지유행성설사병은 경기 1건 1,400두가 발생한 것을 비롯, 4개 시·도에서 4건 1,675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92.5%인 805두가 더 발생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 7월 현재 돼지유행성설사병 발생두수는 61건 18,184두로 전년 동기 누계 33건 8,286두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났다.

## 작년 축산업 생산액 8.9% 증가

### - 돼지 생산액 2조9,184억원으로 가장 많아

지난해 농림업 중 축산업 생산액이 전년에 비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지난 9월 14일 '국내 농·축·임산물 148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농림업 생산액(명목가격 기준)을 집계한 결과, 농림업 중 축산업 생산액은 9조 519억원으로 전년보다 8.9% 증가했다' 고 밝혔다.

축산업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돼지가 2조 9,1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육우 2조 1,363억원, 닭 7,29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농림업 생산액은 33조4,276억원으로 전년보다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HC 예방접종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 강화

### - 돼지 구입시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 받도록 당부

농림부는 지난 9월 9일 최근 경북 상주, 충남 당진의 돼지콜레라 발생과 관련, 8월 28일 전국 시·도 축산과장 및 관련기관·단체협의회를 개최, 돼지콜레라 방역강화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농림부는 농가 방역의식 고취를 위해 농장주·관리인에 대한 특별 방역교육을 계속 추진키로 하는 한편, 농가들로 하여금 돼지 입식시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관리지역 및 과거 돼지콜레라

발생 시·군(41개소)의 사육 모돈에 대하여 혈청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외관상 질병 증상 없이 항체가가 높은 모돈에 대해서는 농가의 방역의식제고 차원에서 축주 스스로 도축장 출하 등 조기도태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처분을 강화하고, 신고지연의 고의성이 높은 경우 등 방역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육제한 또는 농장 폐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 농업인 '농가부채 문제 해결' 가장 시급

### - 농업인 10명당 6명이 이 같이 응답

농업인들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농정과제로 '농가부채 문제 해결'과 '수입개방에 대한 대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장선(민주), 이우재(무소속), 주진우(한나라) 의원이 전국의 농업인 1,462명과 소비자 657명을 대상으로 설문 및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가장 시급한 농정과제로 '농가부채 문제 해결'이 61.6%로 가장 많았으며, '수입개방 압력 방어' 30%, '협동조합 개혁' 27.4%, 직불금제 등 '농가소득 보조확대' 23.5% 등의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선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국산과 외국산을 확인하겠다'는 응답이 92.2% 나타났으며, 84.3%가 '국산이 비싸더라도 품질이 우수하면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도축장 HACCP 적용 및 운용실태 저조

도축장 HACCP 적용 및 운용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 시·도별 도축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59개 도축장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금번에 실시한 시도별 일제점검은 HACCP 의무적용 도축장 162개소 중 65개소에 대해 실시되었으며, 점검결과, 3개소는 HACCP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됐으며, 45개소는 경고조치, 14개소는 영업정지, 3개소는 행정조치를 유보하는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 "축산분뇨 별도 분리배출·저장시설 설치해야"

### - 환경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앞으로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6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축산분뇨 분리·저장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가축분과 뇨를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이를 분리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축분 분리·저장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축산퇴비를 생산하여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

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축산폐수의 재활용을 빙자한 불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폐수 재활용업자의 신고대상자를 축산폐수 일일 1톤 이상에서 일일 400kg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의 적정 운영을 위해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처리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시·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6월 이내에 유입기준을 설정하는 등 유입 기준이 강화된다.

## 마지막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 14일 경과 후 가축 수매

### - 농림부,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고시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콜레라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농림부는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가졌다. 이 안에 따르면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적용대상에 사람과 축산기자재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이동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축 발생시 발생농장 입구에 전염병 발생사실과 출입금지를 기재한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생농장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및 해당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자 등과 살처분·매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대해서는 살처분 완료일부터 14일까지 외출(반출)을 금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발생직후 위험지역·경계지역안의 감수성 가축에 대해 전염병 확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상관찰을 실시토록 하고, 마지막 발생농장의 살처분 완료일부터 14일 경과 후 가축을 도태 또는 수매를 허용토록 했다.

## 포플러 나무, 축산폐수 정화능력 탁월

### - 3년생 한그루 하루 8ℓ축산분뇨 정화

지난 9월 5일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포플러 나무가 탁월한 축산폐수 정화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업연구원에 따르면 3년생 포플러 한그루는 하루 8ℓ의 축산폐수 정화능력을 가지고 있어 생장을 거의 하지 않는 비오는 날과 겨울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최소 600ℓ의 축산분뇨를 흡수·정화할 수 있다.

연구원측은 "이번 조사결과 1ha의 3년생 포플러 정화림을 조성할 경우 300마리의 소가 연간 배출하는 축산폐수를 모두 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포플러 나무를 축산폐수 정화에 이용할 경우 경비절감과 환경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농협, '농축산물 가격예측모형' 개발

### - 3~5년의 중장기 가격변동 예측, 대출심사시 활용

최근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 등의 농업자금대출의 시장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예측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9월 4일 (주)코리아PDS와 '농축산물 가격예측모형'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농축산물 가격예측모형'은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고 있는 축산 등 농축산물 25개 품목의 가격 변동추세 및 변동요인을 분석, 3~5년 중장기 가격변동방향을 예측하게 된다.

농협은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이는 △품목별 가격 및 변수를 조사해 품목과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 △품목별로 최적의 예측모델을 개발 △예측모형을 웹으로 구현으로 크게 3단계로 이뤄진다. 이 예측결과는 농협이 취급하는 농업자금 대출심사시 과학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될 계획이다.

## 방역본부, 태풍피해지역 양축농가 방역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정영채)는 태풍 '매미'로 인해 경남을 비롯, 전남 등의 축산농가의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소독지원 등 적극적인 방역지원 활동에 나섰다.

방역본부 경남도본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함안군 가야읍 소재 함양양돈단지의 침수피해 복구지원 활동을 위해 긴급방역지원에 나섰다.

또한, 전남도본부는 여수지역 뿐만아니라 고흥, 장흥, 완도지역의 축산농가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해 소독을 지원했다. 아울러, 경북도본부는 방역요원을 동원 23개 시·군 지역 축산농가 366호에 대한 소독지원과 예찰활동에 적극 나섰다.

## 한국동물용의약품물류조합 설립 추진

동물용의약품 보관 및 배송업무 등 물류체계 현대화를 위한 가칭 '한국동물용의약품물류조합' 설립이 추진된다.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회장 김영석)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9월 중 실무자 회의를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물류조합 설립 추진을 본격화 해 내년 2월경 물류조합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 농진청, 표준영농교본 '돼지 질병편' 발간

최근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에서는 2003년도 표준영농교본 발간계획에 따라 가축위생과 질병(돼지 질병편)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돼지질병의 중요성과 질병발생 현황부터 위생관리, 예방접종, 세균 및 바이러스성 질병, 기생충 질병, 영양대사성 질병 및 생식기 질병 등이 원색사진과 함께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 종축협, 국제종돈개량기술 세미나 개최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박순용)는 오는 9월 25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제 종돈개량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미국 NSR 후원으로 실시되는 이번 세미나는 현 미국 양돈산업의 흐름과 미래에 추구하는 신 개념의 양돈이론을 알아보고,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관련하여 양돈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의 Iowa주립대의 John Mabry 박사의 '미국의 종돈개량의 현재와 미래'와 미국 환경관리업체 LLC의 Earl Dotson 대표의 '다가오는 환경규제를 극복하는 방법'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양돈